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75호(구395호) 2008. 10. 12.(격주간)

THE POWER

MANMIN CENTRAL CHURCH
THE 20TH ANNIVERSARY
& THE 3RD GCN ANNIVERSARY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시 62:11)

하나님께서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고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민중앙교회 연혁

HISTORY OF MANMIN CENTRAL CHURCH



82. 7. 25. 개척

- 82. 10. 10. 교회 창립
- 83. 10. 11. 만민기도원 설립
- 84. 03. 12. 만민선교원 개원



84. 12. 31. 이전

- 85. 10. 21. 빛과소금선교회 설립
- 86. 05. 07. 이재록 전도사 목사 안수
- 86. 12. 22. 영동만민교회 창립예배(국내 첫 지성전)



87. 3. 22. 이전

- 87. 04. 15. 「죽음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발간
- 87. 05. 17. 만민중앙소식 창간호 발간
- 87. 06. 25. 밀양만민교회 개척(국내 첫 지교회)
- 90. 04. 01. 국내외 방송설교 시작



91. 2. 10. 이전 예배

- 91. 07. 01, 02.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 창립
- 92. 03. 01. 닛시오케스트라 창단
- 92. 03. 25. 연합성결신학교 개교
- 92. 08. 14, 15. '92 세계성령화 대성회
- 93. 02. 08. 세계 50대 교회 선정(미국 크리스찬 월드지)
- 93. 08. 06.-08. '93 워싱턴 복음화 성회(해외 첫 성회)
- 94. 02. 28. 일본 이다만민교회 창립(해외 첫 지교회)
- 94. 09. 04. 3분 설교 및 환자기도, 음성전화사서함 개설
- 95. 08. 12.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희년대회



96. 6. 10.-20.

제4회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 96. 12. 15. 전국 지교회 동시 화상예배 개시
- 98. 08. 02. 전 세계 인터넷 생방송 개시
- 99. 09. 07.-17. 파키스탄 주의 종 세미나 및 부흥성회(해외 첫 손수건 집회)
- 00. 01. 01. 만민 TV 개국
- 00. 07. 05.-09. 우간다 목회자 세미나 및 대성회
- 00. 09. 14, 15. 일본 나고야 대성회
- 00. 10. 19.-22. 파키스탄 목회자 세미나 및 연합대성회
- 01. 06. 27.-07. 01. 케냐 목회자 세미나 및 연합대성회
- 01. 09. 26.-29. 필리핀 교회 지도자 세미나 및 연합대성회
- 02. 07. 26.-28. 온두라스 목회자 세미나 및 연합대성회
- 02. 10. 10.-13. 인도 목회자 세미나 및 연합대성회
- 03. 11. 12.-14. 러시아 연합대성회
- 04. 10. 01.-03. 독일 연합대성회
- 04. 12. 02.-04. 페루 연합대성회
- 05. 10. 10. GCN 방송 개국
- 06. 02. 16.-18. 콩고 연합대성회
- 06. 07. 27.-29. 미국 뉴욕 연합대성회
- 07. 07. 25. 이스라엘 선교 시작
- 08. 10. 12. 교회 창립 26주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 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2부 · 오전 11:30	오후 8:0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2부 ·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 오후 1:30
새벽예배 새벽 5:0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본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 협 100072-52-061722
- 우 체 국 012419-02-047269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3)

많은 크리스천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가 구세주임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듯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행한 만큼 영적 믿음을 지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 새 예루살렘의 소망과 온전한 사랑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믿음의 성장과정

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장년이 되는 것처럼 성장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려면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받은 믿음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없지요. 2단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 하나 행하는 것보다 행치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1,2단계는 사람의 성장 단계에 비유하면 유아나 아동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나 아직 영적으로 어리지요. 3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청년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마음과 생각으로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 과정에서 육신 퍼센트가 지난 경우에는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합니다. 어엿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능히 감당할 수 있지요. 4단계는 마음에 서조차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하며 항상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함이 따르지요.

마지막으로 5단계는 마음에서 악을 온전히 버림은 물론, 선과 사랑과 진리로 마음을 채운 상태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쁨이 되지요.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최소한 반석 이상의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믿음의 4단계 지나 최고의 믿음인 5단계까지 이르길 원하지요. 왜냐하면 4단계가 되어야 하나님 마음을 안다 할 수 있고, 5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능이 주어져 믿음의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지요. 많은 영혼을 깨우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5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 만연해 믿음 갖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권능의 역사와 기이하고 희한한 일을 무수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영의 세계도 밝히 알게 해 주시고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변함없이 놀라운 권능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다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므로 스스로 낙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신속히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3.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내 근심하며 부정적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사랑에서 점차 멀어지게 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지요. 바다에서 배가 파괴돼 파편에 겨우 몸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도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또한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므로 감사하며 찬양했지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확신했는지요? 어떤 일이 닦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였는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봐’ 하며 그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았는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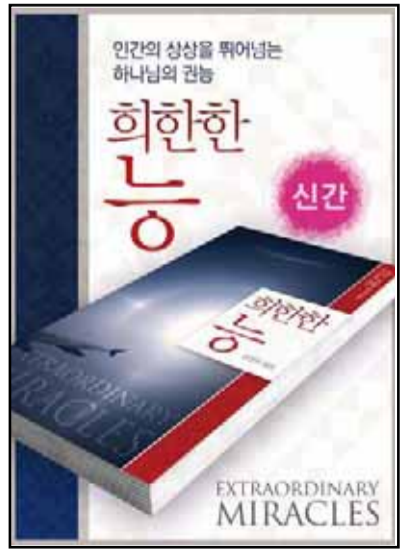
4. 새 예루살렘의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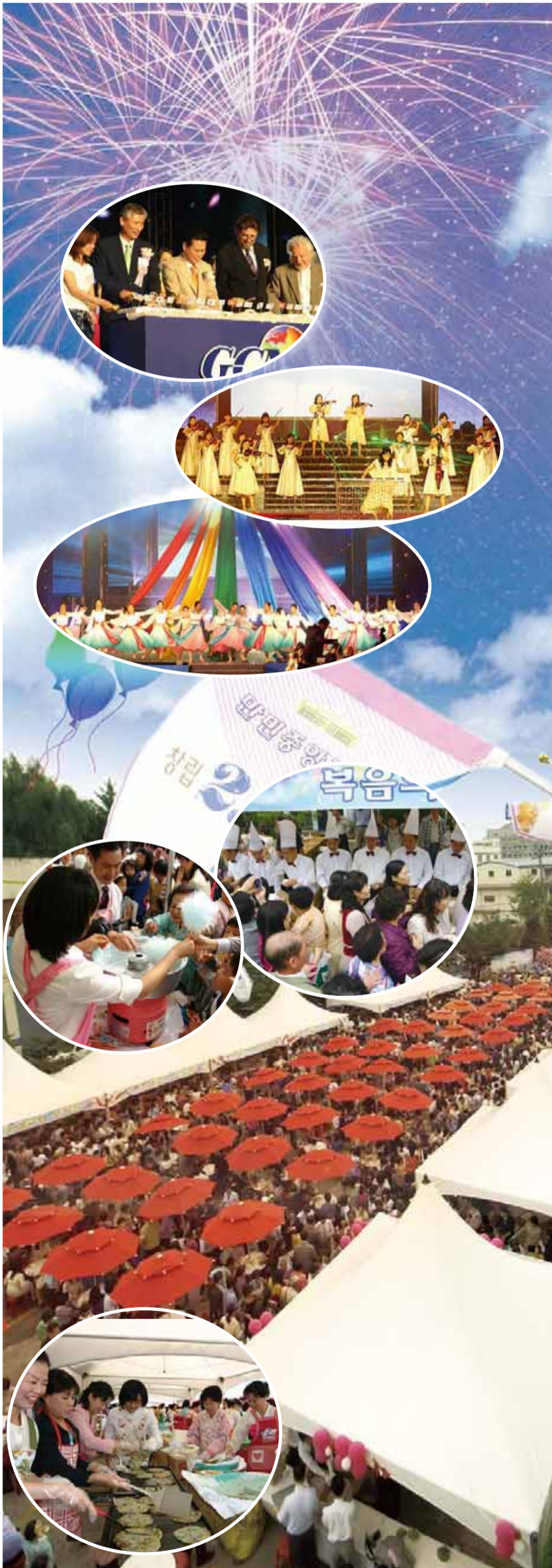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결정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5단계가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사랑이 온전할수록 새 예루살렘의 소망은 뚜렷해집니다. 자녀가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길 원하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해 그 길을 가지요. 반면, 입술로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 하지만 그 길에서 늘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소망이 있다면 늘 새 예루살렘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 소망 가운데 이뤄집니다. 누군가를 사모하면 그분의 마음을 따르며 닮듯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다면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뜻을 좇게 됩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고,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이해하며 그 뜻을 온전히 좇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교회 창립 26주년 및 GCN 개국 3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

성결 복음 아래 크나큰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만민중앙교회가 창립 스물여섯 돌을 맞는다. 만민중앙교회는 10월 12일 창립을 맞아 약 30개국에서 내빈을 비롯, 일반 성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갖가지 축하행사를 갖는다.

이번 축하행사는 10월 10일 금요일야 예배 2부에서 교회의 발전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광> 상영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12일에는 주일 대예배를 마친 뒤 야외 행사장에서 <만민 새 예루살렘 천국잔치>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기념사진 촬영소와 아홉 가지 먹거리가 마련돼 모든 참가자가 어울려 흥겨운 한때를 보낼 수 있다. 이어 오후 3시 저녁 예배 때에는 교회 창립 26주년 및 GCN(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 개국 3주년 기념예배와 축하행사가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기념 예배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선한 자녀'(롬 12: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어 2부에서 GCN 개국 3주년 기념행사가 치러지고 3부에는 '영광'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 공연에는 예능위원회 소속 팀에서 400여 명이 참가하며, 100여 명의 공연 전문 스태프도 참여한다. 이번 공연은 예년과 달리 본당 특설 무대와 야외무대에서 2원 생중계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참가하는 예능위원회 소속 팀들은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공연 경험을 통해 일궈온 기량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기독교화를 통한 세계선교 확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미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교회 창립 및 GCN 기념행사는 올해에도 약 30개국에서 교계, 정계, 언론계, 선교사, WCDN(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GCN과 만민 TV 위성방송, 인터넷 TV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및 녹화 중계된다.

창립 26주년 의의와 해외선교

이번 창립 26주년은 권능 사역을 통한 글로벌 선교의 중심이 되는 시점에 맞이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만민중앙교회는 교회 성장과 함께 해외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1993년 워싱턴을 시작으로 96년 하와이 한인교회 연합성회 및 아르헨티나 한인 축복대성회 개최 등 해외 사역에 나섰다. 2000년도부터는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비롯, 본격적인 해외 연합대성회를 열어 이후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 뉴욕 등 12차례의 해외 연합대성회를 통해 그야말로 지구촌 전역을 누비는 전방위 선교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우고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썼다. 그 마지막 단계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스라엘에까지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지난해와 올해 7차례에 걸친 활발한 교류 끝에 이스라엘 현지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다.

국내 선교와 민족복음화 영역 확대

1991년 7월, 하나님 섭리에 의해 예수교 대한 연합 성결교단이 설립됨에 따라 독자적 교단을 형성한 가운데 이재록 목사는 '92 성령화대성회' 실무대회장을 비롯, '기독교세계 부흥선교 협의회' 상임회장, '95 민족통일 희년대성회' 실무대회장 등을 맡으면서 국내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는 한편, 이에 만민중앙교회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재록 목사는 극동방송을 시작으로 아세아방송, 기독교방송 및 해외방송을 포함, 모두 900분 분량이 방송됨으로써 최장 방송 시간을 기록하는 등 민족복음화의 영역을 넓히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특히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2차례 동안 열린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는 수많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이끈 것은 물론, 병고에 시달리는 술한 환자를 치료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내는 데에 기여했다.

계속되는 만민의 사역

하나님은 교회 창립 26주년과 함께 GCN 개국 3주년을 맞을 때까지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가 급속히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축복하셨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 믿음이 있는 전 세계 성도들을 택해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믿음의 행로를 지속해야 할 때이다. 지난 26년 동안 술한 시련과 연단,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청년 만민의 숨 가쁜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 3:27)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주고 또 주어도,
베풀고 또 베풀어도,
마르지 않은 축복의 샘을
가졌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나눔 행사
'넛시 해피 콘서트'

'만민' 이라 행

창립 26년만에 10만여
오늘도 사랑으로



사랑의 식사 나누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폭설재해지역 제설작업을 하는 만민봉사대

사랑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갈 5:13-14)

신기하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태안 기름 방제 봉사

사랑은 이름의 복

명으로 늘어난 만민 가족이
하나 되어 행복을 연다



무의탁 노인 복지시설 '무지개 뜨는 마을'



미용인 선교회 미용 봉사

초심을 이어가는 만민의 표정

개혁 멤버 VS 새내기 성도

Old



학생들 손에 토근을 쥐어 주던 잊지 못할 추억

문현주 집사(사무국 근무)

“여고 시절,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학생들 손에 토근을 쥐어 주며 미소 짓던 당회장님 얼굴이 떠오르네요. 당시 ‘세계를 이루리라’ 하셨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크게 이뤄진 걸 보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후 26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지켜 온 문현주 집사. 현재 예술선교단 단원이자 교회 살림을 맡아 하는 사무국 직원으로 충성한다. 마흔을 훌쩍 넘긴 골드미스인 그녀에게 ‘왜 결혼하지 않았냐?’고 묻는 이도 있다. 하지만 주의 일에 전념하다 보니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녀는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한없이 행복하다.

‘주의 성전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보다 더 행복하다. 악한 자들의 집에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겠다’(시 84:10)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에 생명의 제단에서 일익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은혜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더 크게 사무치는 요즘이다.

눈물의 중보기도가 지금의 나로

최종태 장로(남지역장연합회 회장)



“주일 대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식사기도 하는 틈에 빠져 나가 경마장에 가고, 집에 심방 오면 옥상으로 도망가곤 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새 신자가 오면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나가지 못하게요. 그런 제가 장로가 되다니,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한량없이 큼니다.”

개혁한 해인 1982년 친척 동생의 전도로 등록했지만, 오랜 시간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근처만 맴돌던 그였다. 그러던 1989년, 한약방에 가도 차도가 없고 통증으로 기절까지 하던 위염이 그해 송구영신예배 때에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료됐다. 그 뒤 즐겨 듣던 트로트 테이프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승용차 안에는 설교 테이프가 놓였다. 점심시간에는 전도하고 영혼들을 돌보며 장결자를 찾아 나섰다. 등록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성도를 마음에서 지우지 않고 늘 눈물로 중보 기도한 만민 가족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며 눈가가 촉촉해지는 최종태 장로.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새 신자, 장결자를 심방하는 데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데 그는 부족한 자신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할 따름이다.

전국 곳곳에서 온 환자로 복새통을 이루던 성전

이성숙 전도사(학생주일학교 교장)



창립 멤버로 교회와 동고동락한 이성숙 전도사, 그녀의 기억 속에 26년 전 만민중앙교회는 걸로 작은 교회에 불과했지만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권세 있는 말씀과 권능이 있었고, 365일 꺼지지 않는 기도 불과 서로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보는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학생주일학교 교장인 그녀는 학생 때문에 울고 웃는다.

나이는 어리지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학업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다. 하지만 교회에는 다니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이 크다. 학생 때 주님을 만나 늘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로 살아 온 그녀는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학생의 모습에 대해 늘 생각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호흡해 온 그녀는 앞으로 더욱 창대히 이를 만민의 역사를 눈앞에 그리며 다시 한번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 본다.

New

나를 기억하고 축복하신 사랑

김수 성도(6교구, 2-1남선교회)



“결혼 11년 만에 아빠가 됐습니다. 응답받은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이 감동입니다. 교회에 다닌 후로 제가 많이 달라졌대요. 혈기가 참 많이 사라졌어요. 사람들한테 선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요, 때론 안 될 때도 있지만, 노력하니가 되어가는 걸 체험하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올해 1월 25일, ‘영태의 축복’을 위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뒤 고대하던 2세를 얻은 김수 성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 없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동생들이 이해되지 않아 핍박하던 그가 직장 동료의 전도로 작년 8월 등록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행복을 찾은 것이다. 낯이 접하는 말씀과 만민 식구는 영혼의 안식과 삶에 기쁨을 더해 준다. 주일성수와 심일조는 기본이고, 예배 때 듣는 말씀은 알면 알수록 희열이 넘친다.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냉창고에 두고 마시던 술병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전의 모든 생활은 정리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백하는 그의 환한 미소 속에서 만민의 행복한 오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신앙의 참맛을 느끼는 요즘

고윤영 성도(18교구, 1-2남선교회)



“처음에 접한 말씀은 MP3 파일에 담긴 창세기 강해였어요. 과학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과학과 영적 세계와의 연결 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고윤영 성도는 올 4월에 등록한 새 신자이지만, 중·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큰 교회에서 학생회장까지 하며 교회생활에 꽤 열심히던 일꾼이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를 통해 우리 교회로 인도되고 보니 예전의 신앙은 그저 열심히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교 들을 때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릎을 치는 요즘, 그는 새롭게 배우는 것이 많다. 기도시간 5분을 채우기도 힘들던 그가 다니엘철야에 참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익히고, 구역예배와 선교회 모임을 통해 믿음의 형제들의 간증과 은혜를 나누며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알아간다.

고개를 가우둥거리던 성경 내용이 지금은 믿어지고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었나!’ 할 정도다.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살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끼며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의 문을 열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초심을 이어가는 만민의 힘이 엿보인다.

개국 3주년 맞는 GCN 21세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다!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지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방송매체를 통한 선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격적인 방송 선교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우리 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방송이라는 첨단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2000년 1월, 만민 TV를 설립했다.

만민 TV는 인터넷 방송으로 개국한 이후 NRB(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 FEB(유럽기독교방송인협회), COICOM(스페인어권기독교방송인협회), 필리핀 케이블 컨벤션에 참가해 세계의 기독교 방송들과 협력하여 왔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형 해외성회를 전 세계에 중계하며 급속도로 방송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

세계 크리스천들의 열망, GCN이 결성되다



만민 TV를 주축으로 미국, 영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러시아, 호주, 스페인 8개국 기독교 방송인이 모여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온 땅에 전파하고자 2004년 5월, GCN이 결성됐다.

GCN(Global Christian Network 이사장 이재록 목사)은 최첨단 방송기술을 세계 선교에 도입해 다중 외국어 통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 및 지방 협력방송국 및 전 세계 네트워크에 배급, 방송하기 위해 결성된 세계적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이다.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GCN은 2005년 10월 10일에 개국해 전 세계를 향하여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국으로서 힘차게 발돋움 하고 있다.

전 세계를 덮어 가는 GCN 커버리지

GCN은 필리핀의 86개 케이블 네트워크와 NSS6, ABS1, THAICOM5 위성을 사용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지역에 24시간 송출한다.

또한 뉴욕의 공중파 17번, 북미의 글로리스타 위성 방송에 런칭 된 GCN 채널에 40% 이상 만민 TV 프로그램이 방송되며, 러시아어 방송네

트워크 RBNrodnoy와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러시아, 유럽, 아시아, 북남미 대륙, 이스라엘 등지에 방송된다.

그 밖에도 유럽의 홀리갓 TV, 알파오메가 TV, 러브월드 TV, 파키스탄의 JCTV, 인도 엔젤 TV에서 방송된다. 특히 남미 최대의 기독교방송사인 엔라세를 통해 약 3천여 개 이상의 케이블 방송에서 만민 TV 프로그램이 중남미 전역에 방송되며, 온두라스 JBN, 엘살바도르 CH17, CH67, 코스타리카 크리스토티전 등에도 공급해 중남미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콩고 국영방송인 디지털 콩고와 기독교방송인 RTDV 등의 채널을 통해 만민 TV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2008년 9월에는 미국 워싱턴 지역 라디오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 노인성 치매로 고통받던 ‘애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애나’가 GCN을 통해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를 받게 했고 그때마다 그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말리나 스토이아노비키·뉴욕 롱 아일랜드), “최근 우리나라

되었습니다.”(카를로스 엔리케 로페스 고체스·엘살바도르)

이렇듯 GCN은 전 세계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GCN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상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GCN과 함께 글로벌 선교를 지향하는 ‘만민 TV’

만민 TV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 프로그램 ‘생명의 말씀’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찬양예배 ‘GCN 파워프레이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치료와 개종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재록 목사의 ‘해외성회 시리즈’, 우리 주변의 다양한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룬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철야기도회’ 실황 등 말씀·찬양·권능·선교·간증·기도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GCN 방송에 제공해 왔다.

만민 TV는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며, 국내는 물론 해외 위성, 케이블, 공중파, 인터



활발히 실행하고 있다.

GCN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간병인으로 98세 된 ‘애나 도리아’라는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

라 채널 25번을 통해 박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었던 특별함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능과 진실함을 느끼며, 성령의 감동함 속에 이렇게 서신을 쓰게

넷,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세계 유수의 기독교 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독교 방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다중 언어 시스템을 갖춰 각 나라별 현지어 프로그램을 송출 및 공급하며 IPTV, 모바일 등 최첨단 신기술을 선교에 접목해 활용함으로써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 선교 방송을 지향한다.

개척 때부터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해온 우리 교회는 문서 선교와 GCN 방송, 쌍두마차를 통해 성령의 복음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깨우며,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부응하고 있다.



내실 다지는 국내 지교회

창립 후 26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를 목도하고, 성결의 복음으로 거듭난 많은 이가 자신을 변화시킨 '만민'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힘써 왔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 어떤 이는 연고지도 없는 해외 곳곳으로 담대히 나갔고, 어떤 이는 성결의 복음을 들고 전국 각지로 사명의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피와 땀이 서린 전 세계 7800여 개의 지교회 가운데 38개의 국내 지교회가 있다. 그 중 영남권과 중부권, 호남권의 세 교회를 통해 그 열매를 소개한다. <편집자>



매월 세번째 토요일 정오, 마산역 광장에서는 길게 늘어선 노숙자의 행렬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머리를 손질하고 필요한 옷가지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권에서는 환한 얼굴의 젊은이들이 찬양

하며 기차역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교회소식지를 나누어 준다.

올해로 10년째 이어오는 마산만민성결교회의 '사랑의 국수 나누기'와 '이·미용 봉사' 및 '의복나누기' 행사 모습이다. IMF사태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노숙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시작한 작은 섬김이 변함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뿐 아니라 몸이 불편하고 연로한 성도를 위해 '목욕 봉사'를 제공한다. 매년 다른 지역을 선정해 진행하는 이 행사는 교회 각 기관이나 성도들의 찬조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은 교

회뿐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며,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한다.

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아래로 지역주민을 섬기는 마산만민성결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남 지역이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길 소망한다.

마산만민성결교회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다.

김상태 목사



대전만민교회
말씀 무장과 조직의 체계화를 이룬다.

길태식 목사



로 시험지가 배포되고 성도들은 익숙한 동작으로 신속하게 답을 적어내려 간다. 이 이색적인 풍경이 대전만민교회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5년 전인 2003년부터 대전만민교회는 난이도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해 매달 자체적으로 '말씀암송대회'

를 실시해 왔다. 대전만민교회가 '전성도 말씀퀴즈대회'에서 2회 연속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3회 연속으

로 단체 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우연이 아닌 이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인 셈이다.

'말씀을 암송하고부터 삶 속에서 무장된 말씀을 적용해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받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므로 더욱 성결을 사모해 변화되고 있다'고 성도들은 입을 모은다.

대전만민교회는 선교회와 교구, 22개 부서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매거진 팀에서는 매달 교회의 각종 행사 소식을 자체 제작해 방영하며, 홈페이지관리부에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해 앞으로 활발히 펼쳐질

미디어 선교에 예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입구부터 자리 잡은 권능의 단물터(출 15장)와 분수대, 아름답게 단장된 정원과 정자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친숙한 장소가 되었다.

이처럼 자랑거리 많은 대전만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더욱 든든히 서며 중부권 복음화에 일익을 감당하길 기대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도에 열중한 광주만민교회 성도, 자나깨나 이들의 기도제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성결'이다.

매일 밤 9시부터 우리 교회와 GCN

으로 함께하는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있지만, 성도들은 이것 외에도 하루 30분에서 1시간, 100일·60일·30일 작성하여 성결을 위해 기도한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팔복과 사랑장, 선의 4단계' 등 정리한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해부하고 분석하며 성결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성도들은 마음먹은 대로 기도가 지켜지지 않거나, 마음의 악이 발견되면 자신을 채찍질하는 의미로 3일, 5일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도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체득하며, 현재 많은 성도가 '성결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수년 동안 '성결기도'를 쌓아온 성도 가운데에는 이제 영혼이 잘되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는 이들도 많다. '성결기도'는 광주만민교회 성도들의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을 반증하는 것인 동시에, 교회의 모든 일을 화평 가운데 이루는 데 촉매 역할을 한다. 영적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과 성

광주만민교회
'성결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다

박형렬 목사



결에 대한 사모함으로 뜨겁게 달려가는 광주만민교회를 통해 광주에 영적 새 바람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청년, 만민 세계 위에 우뚝 서다!

해외 지교회에서 현지어로 보낸
창립 26주년 축하 메시지



벨기에 Félicitations au 26ième anniversaire de l'église!



페루 Feliz 26 Aniversario Iglesia Central Manmin



일본 創立26周年を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케냐 PONGEZI!! Kuadhimisha Mwaka we 26



인도 26^{ആം} ആண்டு വിവാ കാണാം
മാണ്മിൻ നൂതനതമ സകലകൃ
ബംഗൾ അൻപിൻ വാழ്ത്തുകകൾ.



네팔 दृढौ वार्षिकोत्सवको
वधाई तथा शुभकामना



몽골 Төв Чуулганы 26-н жилийн ойн
баярын мэндийг хүргье!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51)805-1363,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6-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8-618-6194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9-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8947-5989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1-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47-5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054)32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6-539-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1-602-9522
- 남포항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정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9-234-3719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0-6712-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흥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